

## Picture within a Picture (Email Exchange 2005 Oct.)

Dear Dr. Wu Hung

I am a painter from Korea who works on chalkboard. Recently I read your book "Double Screen". "The essence of the painting \*Double Screen, is the tension between image and medium. The image painted on a screen always struggles to achieve its independence as an optical illusion; a screen's frame always destroys such illusion and allows one more screen to be painted on its surface. As a metapicture, the *Double Screen* is not about the principle of duplication and repetition, but the dialectical relationship between medium and image - each in an effort to assert its primacy in order to produce the other."

Above paragraph helped me to find a way to juxtapose moving and static image on the same surface. I am sending you two images "Drinking Tea", and "Boy from Seoul" my recent work which deals with the issue. Thank you for giving me an insight into my picture making.

Dear Ms. Kim

I'm glad that you found my work useful; and indeed in your work I can see that you share my interest in spatial juxtaposition and interaction. Thank you for sending me the two images. These are very interesting, skilled works. Congratulations! Are you based in New York or Seoul? I like your work and hope that we keep in touch.

Yours, Wu Hung

Dear Dr. Wu Hung

I am grateful for your encouraging compliment.

I am in New York now and will be staying here until spring.

Last few years I have been splitting my time between New York in the winter and summer in Korea. My studio is not in Seoul but in the rural area close to the DMZ, 3 hours drive from Seoul. It is an abandoned school house with 4 classrooms. That location inspired me to work on chalkboard and issues of dislocation. Shifting environment has its downside but it keep me on my toes.

Sincerely, Myong Hi Kim

## 그림 속의 그림 (2005년 10월 이메일 교환)

우흥교수님께

저는 칠판에 그림을 그리는 한국작가입니다. 최근 교수님의 책 '그림 속에 그림'을 읽었습니다. "저우원쥐의 작품 '병풍 속에 병풍'의 핵심은 이미지와 매체 사이의 긴장이다. 병풍 위에 그려진 이미지는 항상 하나의 시각적 일루전으로 독립하려고 투쟁하지만, 병풍의 틀은 언제나 그러한 일루전을 파괴하여 그 위에 병풍이 또 그려지도록 허용한다.

메타회화로서의 '병풍속의 병풍'은 (일반적인 '그림 속의 그림'이 그러하듯) 복제와 반복의 원리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매체와 이미지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에 충실하다. 그것은 다른 작품을 생산하기 위해 자기의 우월성을 주장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위의 글이 한 화면에 움직이는 이미지와 정적인 이미지를 병치시키는 방법적 근거를 찾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했던 두 작품을 보냅니다. 제 그림 만들기에 통찰력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작가님께

제 글에서 도움을 받았다니 기쁩니다. 김작가님 작품은 진정으로 공간 병치와 그의 상호작용에 대한 저의 관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작품 이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흥미롭고 숙련된 작품입니다. 축하합니다. 뉴욕과 서울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작품이 제마음에 들며 계속 연락 바랍니다.

우흥박사님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뉴욕에 있고 봄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몇해 동안 겨울에는 뉴욕, 여름에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작업실은 서울에서 3시간 차로 달려야하는 DMZ 근처입니다. 교실 4개의 폐교입니다. 환경바꾸기는 단점도 있으나 긴장감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김명희 드림

Dr. Wu Hung: Professor of Art History, University of Chicago, Author of "Double Scree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Double Screen; 저우원쥐의 그림 '병풍 속의 병풍' 10세기 작품의 명대

임모본, Washington DC, Freer Museum